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2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32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또 해냈다! 성취감 위해 회원·가족 행복나들이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3·1절 마라톤을 통해 회원간 친목 도모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가족들과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어 야외회 가는 기본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이하 배드민턴협회) 박봉희(41) 회장이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참가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사실 지난해에는 주변의 권유로 등 떠밀려 참가했다. 하지만 완주하고 난 뒤 생각이 달라졌다. 해냈다는 성취감은 물론 자녀들과 함께 달렸다는 점이 너무 좋았다”면서 “올해는 회원들을 설득해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첫 결성된 배드민턴협회는 현재 50여명의 회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전남체육관 두 곳에서 운동을 즐기고 있다.

운동으로 돈독한 정 쌓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선 회원 40여명이 월·수·금요일(오후 7~10시)·토요일(오후 4~7시), 전남대에선 광주대표 선수 7명이 월·금요일(오전 10~12시)에 각각 모여 서로 땀 흘리며 돈독한 정도 쌓아가고 있다.

배드민턴협회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신입 장애인 회원 보다 그의 가족들에게 먼저 배드민턴을 가르친다. 가족들이 운동에 흥미를 가져야 회원들도 빠지지 않고 같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회원·가족들 모두 식구처럼 끈끈한 우애를 나누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회원 황동기(43·척수장애)씨는 아들 근수군과 함께 6개월간 운동을 하면서 여느 때 보다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황 씨는 “평소에도 아들과 자주 놀아주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다보니 얘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서로 이해하는 폭도 더 커진 것 같다”며 운



3·1절 마라톤대회에 2년 연속 참가하는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가족들과 함께 야외회 가는 기본으로 부담없이 출전해 참가자 모두 완주할 것을 다짐했다.

동 이후 달라진 생활을 자랑스럽게 털어놓았다.

2년 연속 출전...완주 다짐

이제는 어른들과 상대할 정도의 배드민턴 기량을 갖춘 아들 근수군도 “아빠랑 운동하는 게 재미있다. 다음엔 시합에도 나가

고 싶다”며 마냥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

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금 1, 은 1, 동 3개로 종합 10위를 기록했다. 창단 2년 밖에 되지 않은 협회로서는 최고의 성적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이보다 3~4단계 더 오른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회장은 “동호인 클럽을 더 늘려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면서 “이번 3·1절 마라톤을 통해서 이러한 의지를 더욱 다져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의 행복한 질주를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청용시대... 세계 최고무대 통했다

박주영-이청용 동반 날갯짓

골 가뭇 속탄 허정무호 ‘희색’

시즌 5호골 폭발... 불턴, 번리전 1대0 승 이끌어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시즌 최다 공격포인트

‘블루드래곤’ 이청용(22·불턴)이 시즌 5호골을 터트리면서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1골2도움)와 함께 역대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5골 5도움) 기록을 세웠다.
이청용은 27일(한국시간) 영국 리복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번리와 2009-201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선발출전해 전반 34분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왼발슛으로 결승골을 터트리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시즌 5호골(정규리그 4골, FA컵 1골)을 작렬한 이청용은 지난 2005-2006 시즌 설기현(당시 레딩·4골 5도움)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9개)를 넘어 최다 기록을 세웠고,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06-

2007시즌 세웠던 한 시즌 최다골(5골)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특히 지난 21일 아스널과 정규리그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연이어 치러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FA컵 32강전에서 도움을 맛봤던 이청용은 이날 골을 합쳐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불턴은 이청용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하며 이번 시즌 정규리그 첫 무실점 경기와 더불어 정규리그 5승6무10패(승점 21)로 15위로 뛰어올라 강등권에서 탈출했다. 10경기 연속 선발출전한 이청용의 뛰어난 집중력과 골 결정력이 빛을 발한 경기였다.
한편 영국의 스포츠전문채널 스키이스포츠는 이청용의 활약에 대해 “대단한 마무리(Super finish)”라는 칭찬과 더불어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줬다. /연합뉴스



불턴의 이청용이 27일(한국시간) 리복스타디움에서 열린 영국 프리미어리그 번리와 경기에서 볼을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와 공격수들의 골 가뭇 탓에 속은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지만 유럽에서 연일 날아드는 박주영(25·AS모나코), 이청용의 골 소식에 얼굴이 환하다.
대표팀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자리를 예약한 이청용은 27일(한국시간) 번리와 2009-2010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34분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왼발슛으로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며 1-0 승리에 앞장섰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불턴에 입단한 이청용의 시즌 5호골이다. 이청용은 5도움을 합쳐 공격포인트 10개로 설기현(포항)이 레딩 소속이던 2005-2006시즌 작성했던 종전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9개·4골 5도움)를 갈아치웠다.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린 이청용은 한 골만 보태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05-2006시즌 기록했던 한 시즌 최다골(5골)마저 넘어선다.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박주영의 득점포도

태극전사에 이근호·곽태휘 가세

동아시아대회 축구 대표팀 확정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5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2010 동아시아연맹 축구 선수권대회에 나갈 태극전사 23명이 확정됐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27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기술위원회 직후 선수단 23명을 확정하고 나서 발탁 배경 등을 밝혔다.

이번 23명에는 지난 4일부터 남아공 루스텐버그-스페인 말라가로 이어졌던 20여일간의 해외 전지훈련 명단 24명 가운데 공격수 김신욱(울산)과 수비수 최철순(전북), 김근환(오교하마) 등 3명만 낙마하고 나머지 21명이 허정무 감독의 재신임을 얻었다.

이들 외에 소속팀 일정으로 전후에 참가하지 못했던 일본 J-리그 공격수 이근호(이와타)와 ‘골 넣는 수비수’ 곽태휘(교토)가 새롭게 가세했다.

화끈하게 폭발하고 있다.
박주영은 지난 25일 올랭피크 리옹과 프랑스컵 32강전에서 후반 32분 2-1 승리를 확정짓는 결승 헤딩골을 터뜨렸다.
프랑스 진출 2년째를 맞은 박주영의 올 시즌 7호골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스페인 말라가로 이어진 전지훈련 기간 국내와 공격수들의 마무리 부족에 답답함을 호소했던 허정무 감독으로서 가뭇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에 대표팀의 주축 공격수 박주영과 측면 자위 이청용의 맹활약은 한국 대표팀의 골 결정력 부족을 해소해줄 희망이다.
대표팀은 다음 달 6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릴 동아시아연맹선수권대회까지는 국내파와 J-리그 위주로 실력을 계속하고 3월3일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 때 이청용과 박주영, 박지성, 기성용(셀틱) 등을 모두 합류시켜 월드컵을 앞둔 최종 엔트리 23명의 윤곽을 잡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청용 5골 5도움, 지성 넘어서다

이청용이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5골5도움)를 기록하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의 확실한 ‘블루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청용은 27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리복스타디움에서 치러진 2009-2010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번리를 상대로 전반 34분 결승골을 터트리며 불턴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이청용의 이날 골은 여러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던 선수 가운데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공격포인트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이번 시즌 두 번째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1골2도움)의 기쁨도 맛봤다.
이청용의 이날 결승골 덕분에 불턴은 이번 시즌 첫 정규리그 무실점 경기를 치렀고, 지난 9일 새로 지휘봉을 잡은 오언 코일 감독은 사령탑 부임 이후 정규리그 첫 승리를

맞았다. 게다가 19위로 처지면서 강등권에서 헤매던 불턴은 4계단 뛰어오른 15위가 돼 지긋지긋했던 강등권에서도 탈출했다.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 데뷔 첫 시즌인 이청용은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1호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맨유 첫 시즌 기록을 확실하게 넘어섰다는 게 고무적이다.
박지성은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에서 지난 2005년 여름 맨유 이적하고 나서 데뷔 시즌에 2골 6도움을 기록했다. 또 설기현이 가지고 있던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4골5도움) 기록도 넘어섰다.
이청용은 이제 시즌 중반을 넘긴 상황에서 5골 5도움의 맹활약으로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두자릿수 공격포인트를 돌파했고, 박지성이 2006-2007시즌 세웠던 한 시즌 최다골(5골)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연합뉴스